

이글스 - 좋은 점과 나쁜 점

그러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0:31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고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다. (오바댜 1:4)

모세 오경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출애굽기 19:4)

너희가 새 중에서 가증히 여겨야 할 새들은 이러하니, 그것들은 먹지 말라. 곧 독수리, 물수리, 백조, 펠리컨, 그리고 독수리니라. (레위기 11:13,18)

그러나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할 새는 독수리와 물수리와 물벼룩과 펠리컨과 독수리와 가마우지니라 (신명기 14:12,17)

여호와께서 땅 끝 먼 곳에서 독수리처럼 빠른 속도로 너를 치려는 민족을 보내시리니, 그 민족의 언어는 네가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신명기 28:49)

독수리가 둥지를 휘젓고 새끼들 위로 날아올라 날개를 펼쳐 새끼들을 잡아 날개 위에 싣고 가는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다른 신이 없었느니라. (신명기 32:11-12)

시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생전에 사랑스럽고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었으며, 죽어서도 서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습니다. (사무엘하 1:23)

그들은 마치 빠른 배처럼, 먹이를 향해 급히 달려가는 독수리처럼 사라졌습니다. (욥기 9:26)

독수리가 주의 명령에 따라 높이 날아올라 높은 곳에 둥지를 짓느냐? 욥기 39:27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 그가 네 입을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니, 네 젊음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되리라. 시편 103:1-2,5

네가 없는 것에 눈을 돌리려 하느냐? 재물은 정녕 날개를 달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리느니라. (잠언 23:5)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를 업신여기는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가 쪼아 먹고 어린 독수리가 그것을 먹을 것이다. 내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세 가지 있고, 알지 못하는 일이 네 가지 있으니, 곧 공중을 나는 독수리의 길, 바위 위를 나는 뱀의 길, 바다 한가운데를 나는 배의 길,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가는 길이다. (잠언 30:17-19)

예언자들

그러나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지치지 않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0:31

보라, 그가 구름처럼 올라오시리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우리가 파멸되었도다. (예레미야 4:13)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독수리처럼 날아올라 모압 위에 날개를 펼칠 것이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48:40)

바위 틈에 거하며 산꼭대기를 차지하는 자여, 너의 두려움이 너를 속였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둥지를 틀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가 올라와 독수리처럼 날아 보스라 위에 날개를 펼칠 것이니, 그 날에 에돔 용사들의 마음은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을 것이다. (예레미야 49:16,22)

우리를 쫓는 자들은 하늘의 독수리보다 더 빠르도다. 그들은 산에서 우리를 추격하고 광야에서 우리를 매복하였도다. (예레미야애가 4:19)

그들의 얼굴 모양은 어떠하냐? 그 넷은 사람의 얼굴과 사자의 얼굴을 오른쪽에, 소의 얼굴을 왼쪽에, 그리고 독수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에스겔 1:10)

그 각 천사는 네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 천사의 얼굴이요,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 얼굴은 독수리의 얼굴이었다. (에스겔 10:14)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날개를 가진 큰 독수리 한 마리가 여러 가지 색깔의 깃털을 가득 달고 레바논에 와서 백향목의 가장 높은 가지를 물었습니다. 또 다른 큰 독수리 한 마리도 큰 날개와 많은 깃털을 가지고 있었는데, 보십시오. 그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를 향해 뿌리를 내리고 그 독수리가 밭고랑에서 물을 줄 수 있도록 그 독수리를 향해 가지를 뻗었습니다. (에스겔 17:3,7)

그 시각에 느부갓네살에게 그 일이 이루어졌으니, 그는 사람들로부터 쫓겨나 소처럼 풀을 뜯어 먹고, 그의 몸은 하늘의 이슬에 젖었으며, 그의 머리카락은 독수리 깃털처럼, 손톱은 새 발톱처럼 자랐도다. (다니엘 4:33)

첫째는 사자 같았고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는데, 내가 보니 그 날개가 뽑히고 땅에서 들려 올라와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다니엘 7:4

네 입에 나팔을 대라. 그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치러 올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나의 언약을 어기고 나의 율법을 범하였음이라. 호세아 8:1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르고 별들 사이에 둥지를 틀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다. (오바댜 1:4)

네 자녀들을 위하여 머리를 깎고, 독수리처럼 머리를 넓게 펼쳐라. 이는 그들이 네게서 사로잡혀 갔음을 의미한다. (미가 1:16)

그들의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늑대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넓게 퍼져서 먼 곳에서부터 올 것이며, 먹이를 향해 급히 날아오는 독수리처럼 날아올 것이다. (하박국 1:8)

신약 성서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마태복음 24:28)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누가복음 17:37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고, 셋째 짐승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요한계시록 4:7)

그리고 그 여자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가 주어져서, 광야로 날아가 자기 처소에 이르러, 거기서 뱀의 얼굴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식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14)

외전

내가 꿈을 꾸었는데, 보십시오, 바다에서 독수리 한 마리가 올라왔는데, 날개가 열두 개였고 머리가 세 개였습니다. 내가 보니, 보십시오, 그 독수리는 깃털을 펼치고 날아올라 땅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을 다스렸습니다. 내가 보니, 보십시오, 그 독수리는 발톱으로 일어서서 깃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독수리의 몸에는 머리 세 개와 작은 날개 여섯 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보니, 보십시오, 마치 숲에서 쫓겨난 사나운 사자가 있었습니다. 내가 보니, 그 사자가 독수리에게 사람의 음성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 독수리는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 너의 무시무시한 날개도, 너의 사악한 깃털도, 너의 악의적인 머리도, 너의 해로운 발톱도, 너의 모든 허영스러운 몸도 나타나지 말라." (에스드라스 2 서 11:1,5,7,23,37,45)

사자가 독수리에게 이 말을 하는 동안 내가 보니, 보라, 그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독수리의 온 몸이 불에 타서 땅이 크게 두려워하였더라. 그때 내가 마음의 혼란과 두려움에서 깨어나 내 영혼에게 이르되, 네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본 독수리는 네 형 다니엘의 환상에 나타난 왕국이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전의 모든 자들보다 더 심하게 압제하는 자들이니, 그러므로 그들을 독수리의 머리라 부르는도다. 네가 숲에서 올라와 포효하며 독수리에게 말하고 네가 들은 모든 말로 독수리의 불의를 꾸짖는 것을 네가 보았느니라. (에스드라스 2 서 12:1,3,11,24,31)

에녹

그리고 그들은 들짐승과 새들을 낳기 시작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사자, 호랑이, 늑대, 개, 하이에나, 멧돼지, 여우, 다람쥐, 돼지, 매, 독수리, 솔개, 매, 까마귀 등 여러 종류가 생겨났고, 그 중에서 흰 황소가 태어났도다. (에녹서 89:10)

그 후 나는 환상 중에 하늘의 모든 새들, 곧 독수리, 콘도르, 솔개, 까마귀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독수리가 앞장서서 양들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들은 양들의 눈을 파헤치고 살점을 뜯어먹었습니다. 양들은 새들에게 살점이 뜯어먹히는 고통에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잠결에 그 양들을 돌보는 목자를 생각하며 슬퍼했습니다. 나는 그 양들이 개와 독수리와 솔개에게 완전히 잡아먹혀 살점도, 가죽도, 힘줄도 남지 않고 뼈만 남을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 뼈마저 땅에 떨어져 양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에녹서 90:2-4)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독수리와 콘도르, 까마귀와 솔개들은 계속해서 양들을 찢고 덮쳐 잡아먹었습니다. 양들은 여전히 침묵했지만, 숫양들은 슬피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보니 목자들과 독수리와 콘도르, 솔개들이 와서 까마귀들에게 그 숫양의 뿔을 부러뜨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숫양과 싸우고, 숫양도 그들과 싸우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모든 독수리와 콘도르, 까마귀와 솔개들이 한데 모였고, 들판의 모든 양들도 그들과 함께 왔습니다. 참으로 그들은 모두 함께 모여 서로 도우며 그 숫양의 뿔을 부러뜨렸습니다. (에녹서 90:11,13,16)

죄인들의 환난 날에 너희 자녀들은 독수리처럼 솟아오르리라. 너희 둥지는 독수리보다 더 높으리라. 너희는 땅의 틈새와 바위 틈으로 들어가 불의한 자들 앞에서 영원히 토끼처럼 숨어 지내리라. 그리고 세이렌들이 너희 때문에 탄식하며 울리라. (에녹서 96:2)

성경의 잃어버린 책들

모세는 왜 "돼지나 독수리나 매나 까마귀나 비늘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 답은 영적인 의미에서 세 가지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수리나 매나 솔개나 까마귀도 먹지 말라"는 것은, 자기 수고로 먹을 것을 구하는 법을 모르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남의 것을 빼앗고, 함정을 파놓고는 아무 죄 없는 척 살아갑니다. (바나바의 공서신 9:1,4)

에덴의 잊혀진 책들

왕이 그를 보니, 그는 몹시 굶주린 모습이었고, 머리카락은 들짐승처럼 길게 자랐으며, 손톱은 독수리 발톱처럼 날카로웠고, 몸은 먼지로 더러워졌으며, 얼굴색은 변색되어 잿빛처럼 보였다. (아히카르 이야기 4:26)

하이카르는 자기 거처로 돌아가 사냥꾼들에게 어린 독수리 두 마리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냥꾼들은 독수리를 잡아 하이카르에게 데려왔습니다. 하이카르는 밧줄 짜는 사람들에게 길이가 2 천 규빗(약 650 미터)인 면사 두 줄을 짜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목수들을 불러 큰 상자 두 개를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목수들은 상자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하이카르는 어린 소년 두 명을 데려와 매일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독수리와 소년들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소년들을 독수리 등에 태우고 밧줄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독수리들이

매일 조금씩 10 규빗(약 30 미터) 높이까지 날아오르게 하여 익숙해지도록 했습니다. 마침내 독수리들은 밧줄 끝까지 날아올라 하늘에 닿았고, 소년들은 독수리 등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하이카르는 독수리들을 자기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아히카르 이야기 5:10-11)

그러자 왕은 벌떡 일어나 하이카르와 함께 앉아 넓은 곳으로 가서 사람을 보내 독수리와 소년들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하이카르는 그들을 밧줄로 묶어 하늘로 내려보냈고, 그들은 하이카르가 가르쳐준 대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 하이카르는 그들을 다시 끌어당겨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왕은 하이카르의 미간에 입맞추며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내 왕국의 자랑이여! 이집트로 가서 파라오의 질문에 답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힘으로 그를 이기도록 하라!"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군대와 젊은이들, 그리고 독수리들을 데리고 이집트의 거처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집트에 도착하자 왕의 나라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아히카르 이야기 5:16-18)

왕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고, 그들은 넓은 곳으로 갔습니다. 하이카르와 그의 부하들이 그곳에 도착하여 독수리와 젊은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왕과 모든 귀족들, 그리고 온 성읍 사람들이 모여 하이카르가 무엇을 할지 구경했습니다. 하이카르는 상자에서 독수리를 풀어주고 젊은이들을 독수리 등에 묶은 다음, 독수리의 발에 밧줄을 묶고 하늘로 날려 보냈습니다. 독수리들은 하늘과 땅 사이에 닿을 때까지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아히카르 이야기 6:11-12)

오, 내 아들아! 독수리의 노년은 까마귀의 젊음보다 낫다. (아히카르 이야기 7:48)

야곱의 사슴들은 즐거워하며 달려가고, 이스라엘의 독수리들은 기뻐하며 날아오르며, 모든 백성은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유다의 유언 4:32)

보라, 땅 위에 황소 한 마리가 있었는데, 큰 뿔 두 개가 있고 등에는 독수리 날개가 있었다. 우리가 그 황소를 잡으려 했으나 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와서 그 황소를 잡고 그와 함께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납달리의 유언 2:6-7)